



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



경 동 교 회

Kyungdong Presbyterian Church

제75년 31호

성령강림 후 아홉째 주일

2020년 8월 2일

예배시간 1부 09:30

2부 11:30

성령의 빛 | 정명오 편집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04(장충동 1가)

Tel: 02-2274-0161~3 Fax: 02-2277-0798

<http://www.kdchurch.or.kr>

전주

깊은 고난에서 주께 간구하나이다(F. Mendelssohn) 1부 오르가니스트: 채문경 권사
2부 오르가니스트: 신재우 집사

모임 (*는 일어서서)

***모임찬송**

19장(찬송하는 소리 있어) **다함께**

***예배부름**

목 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강림 후 아홉째 주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고전 6:11),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요 4:24).

회 중: 아멘.

***송영**

..... **오르가니스트**

***시편교독**

목 사: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회 중: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고,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목 사: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 주십시오.

회 중: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목 사: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 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 주십시오.

회 중: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뵈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
습 뵈을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
입니다. 아멘(시 17:1, 4-9, 15).

경배찬송

419장(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다함께**

죄의 고백

목 사: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신다는 말씀(욥 2:12-13)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회 중: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요일 1:9).

응답송

주여 자비 베푸소서(경동찬송 12장) **다함께**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침묵의 기도 다함께

용서의 선언 목 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 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 하신(대하 7:14)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회 중: 아멘.
응답송 **할렐루야**(경동찬송 6장) 다함께
할레 할레 할렐루야 할레 할레 할렐루야
할레 할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2번)

말씀

구약의 말씀 창세기 32:22-31 1부: 박재하 집사
2부: 양정녕 집사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데리고, 압박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 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응답송 **변함없는 주의 말씀**(경동찬송 25장) 1절 다함께
변함없는 주의 말씀 듣고 살아라 우리 말과 우리 맘이 진실하여라

서신의 말씀 로마서 9:1-5 1부: 이가희 집사
2부: 박주일 집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인 내 겨레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응답송

변함없는 주의 말씀(경동찬송 25장) 2절 **다함께**
생수되는 주의 말씀 먹고 살아라 우리 삶에 기쁜 샘이 솟아나리라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서 14:13-21 **목사**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저녁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 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오천 명쯤 되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응답송**

변함없는 주의 말씀(경동찬송 25장) 3절 **다함께**
등불되는 주의 말씀 믿고 따르라 어둔 세상 걸어가도 안전하리라

친교와 소식
공동기도(*별지참조)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공동기도 **목사**
..... **다함께**

응답송

..... **오르가니스트**

특송

깜깜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이동훈 곡) **1부: 정록기 집사**

내 삶의 이유라(이권희 곡) **2부: 최세정 집사**

설교

“동족 대(對) 신앙” **채수일 목사**

기도

..... **설교자**

성만찬

찬송

228장(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2, 4절 **다함께**

성만찬 초대 성만찬 기도

집례자
다함께

집례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회 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집례자: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회 중: 주님께 우리의 기쁜 마음을 바쳐 드립니다.

집례자: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회 중: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집례자: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을 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포로 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 주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하셨으며, 우리와 함께 물과 성령으로 새 언약을 맺으셨으니,

회 중: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늘에 있는 온 천사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능력과 권능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데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응답송

거룩 거룩 거룩(경동찬송 4장) 1절 다함께

거룩 거룩 거룩 온 맘 다해 주 찬양 내 맘을 아시는 주님 거룩한 주님

고린도전서 11:23-26 집례자

제정의 말씀 성령임재의 기원 성만찬 나눔

집례자
다함께

(세례 받은 성도들은 제단 앞으로 나와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감사의 기도

다함께

모든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어,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보냄

봉헌과 찬송 *봉헌기도 *보냄찬송 *축도 *송영 후주

406장(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다함께

목사

하늘에 계신 아버지(경동찬송 37장) 다함께

목사

..... 오르가니스트

영광의 주를 다 찬양하라(J. M. Haydn) 오르가니스트

『경동찬송』은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알리는 말씀

1. 모임

▶귀국: 박진경 교우(7월 21일(화) 독일)

2. 모임

▶당회: 오늘(2일) 오후 1시 30분 교육관 203호

3. 8월 예배 안내 위원

1부: 이무한 집사, 강혜수 권사, 전남일 집사·박귀숙 집사, 양영철 집사, 윤유리 집사

2부: 여규업 집사·송영주 집사, 박진호 집사·노진숙 집사, 이규영 집사, 이휘재 집사

4. 다음 주일(8월 9일) 예배 위원

기도		성경봉독			
고순희 장로	1부	이인재 집사·조영혜 집사	2부	이석한 집사·변윤신 집사	

특별봉헌 7월 19일

감사헌금

강석철·이윤선(가족들 건강 지켜주심), 강원내(감사), 김민정(청담/생일, 7월 감사), 김범수(감사), 김병태·김수미(한결같은 사랑), 김성환·서원순(감사, 십일조), 김수평·임문규(범사), 김순옥(감사), 김용균·김혜린(아들 김호윤 돌), 김진환(황/생일), 김진희(감사), 박나혁(십일조), 박다정(십일조), 박세훈·장은영(박현빈 살피주심), 박정숙(주/십일조), 심영자(남편 추모), 안지민, 안성민(감사), 오인용·남윤희(어머니 추모), 임명자(감사), 임성호·조경아(범사), 조재형(감사), 채수일·김경숙(범사)

지정헌금

영선헌금: 함천진

■ 예배 안내

부 서	일시 및 장소	성 경 말 씀	설 교 제 목	설 교 자
유치부	주일 09:30 경동어린이집	마태복음서 8:13	백부장을 만난 예수님	최고권 전도사
어린이부	주일 09:30 장공채플실	마태복음서 8:5-10	믿음으로 살아요	박재준 전도사
중·고등부	주일 09:30 여해문화공간	마태복음서 8:5-13	믿음으로 살아요	김민정 목사
경청(청년)	주일 14:00 장공채플실	이사야서 1:1-8	하늘아, 들어라!	박선교 목사

주일예배(1, 2부) 참여방법

사전접수: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수(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사무실(T. 02-2274-0161)

주일예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 준수

찬송가와 성경책 개인 지참

개인 마스크(KF80 이상 권유) 필히 착용 후 입장

헌금(주정, 십일조, 감사, 목적헌금)

계좌: 우리은행 1005-403-855152 한국기독교장로회경동교회

*헌금을 입금하실 때 ‘이름’과 함께 ‘헌금내용’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 ○○○십일조, ○○○감사, ○○○목적

주일예배 영상

교회 홈페이지: www.kdchurch.or.kr

유튜브 검색: 경동교회

다음 주일 말씀

8월 9일(성령강림 후 열째 주일, 제75주년 광복절 기념 주일)

성 경: 구 약(창세기 37:1-4)

서신서(로마서 10:5-15)

복음서(마태복음서 14:22-33)

설 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채수일 목사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1.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 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2.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 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 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3.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 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1.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2.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3.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후렴)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2, 4절)

2.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 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맘 새롭다
4.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406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1.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2.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3.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4.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후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경동찬송 37장)

1.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한 그 이름 그 나라 땅위에 오소서 거룩한 그 이름
2. 일용할 양식 주소서 거룩한 그 이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거룩한 그 이름
3. 유혹을 멀게 하소서 거룩한 그 이름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거룩한 그 이름
4. 나라와 권세와 영광 거룩한 그 이름 하늘 아버지께 있도다 거룩한 그 이름
5.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거룩한 그 이름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거룩한 그 이름